

## 나는 왜 원고로 참여했는가

金敏喆

나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 과거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제국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동시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와 교양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을 두고,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매우 상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스쿠니신사가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은 내가 야스쿠니신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별첨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국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 이후 제국주의로 성장하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식민지배하거나 점령한 세력도입니다. 제국일본의 세력 팽창과 함께 식민지와 점령지에 신사들이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사는 제국주의 팽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한 시설이며, 이 시설의 최고 위에 야스쿠니신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인들에게 야스쿠니신사는 단지 일본의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2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강간과 고문, 살육, 가족 파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침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국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침략전쟁을 '聖戰'이니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킨 전쟁'이라 거짓선전하고 자국의 300 만 명이 넘는 민중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군국주의자들에게

‘성전’일지 모르나 일본의 민중과 동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시설일 뿐입니다.

패전으로 제국일본의 군국주의 체제가 부정되고 해체되었으며, 이 체제를 이념적으로 떠받들던 야스쿠니신사는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현재의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을 성전으로 믿던 과거의 신념과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략전쟁의 부정의에 기초하여 만든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제국일본에 희생당한 수천만 명의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게 명백한 모욕입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은 과거의 노예제에 대해 현재의 백인 후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적 부정의(historical injustices)’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손들의 책임 상속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영의 개념을 빌린다면, 야스쿠니신사는 분명 ‘역사적 부정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적 부정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적 부정의(current injustices)’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지금의 야스쿠니신사는 패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일본의 독립을 지키고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슈칸 전시실 15(대동아전쟁)의 ‘제 2 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독립’ 설명문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침략전쟁에 저항한 각국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을 방해한 운동이며, 전쟁으로 죽은 동아시아 민중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노예의 굴종을 선택한 바보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일본국 ‘평화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인식이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있으며,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사회는 여전히 박물관 속에서만 있어야 할 낡은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야스쿠니신사가 주변국에게 '제 2 의 가해'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부정의'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87 년 독일의 저널리스트 랄프 지오르다노(Ralph Giordano)는 '제 2 의 죄-독일인됨의 부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히틀러 시대 독일인이 범한 죄가 '제 1 의 죄'라면, '제 2 의 죄'는 1945 년 이후 '제 1 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 다수의 독일인이 이 '제 2 의 죄'를 저질러 왔다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서독 정치문화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담은 지금부터라도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담은 바로 독일인이 져야 할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오르다노의 표현을 빌어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이 '현재적 부정의'이자 범죄행위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야스쿠니신사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제 1 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 1 의 죄'를 오히려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국들에게 두 번 가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주민들에게 노예상태를 강요하고, 나아가 식민지와 점령지 민중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와 강제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행위를 '제 1 의 가해'라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고 정당화하여 피해자와 피해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제 2 의 가해'라 부르하고자 합니다. '제 2 의 가해'에는 범죄사실의 은폐와 부정, 침략전쟁의 미화와

정당화, 식민주의의 연장인 민족.인종차별 정책,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요구의 거부와 인격적 모독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됩니다.

야스쿠니신사가 범하고 있는 '제 2 의 가해'는 그 역사인식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만인 유족들의 합사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유족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합사한 것도 모자라 명부에서 이름을 빼라는 단순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유족의 추모권을 부정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야스쿠니신사가 세상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최소한의 상식이나 인류의 공통적인 인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설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자유마저 빼앗아갑니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 비유합니다. 무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알링턴 묘지가 유족의 뜻을 짓밟아, 강제로 매장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상식에 해당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사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적 부정의'가 아니라 '현재적 부정의'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시설입니다.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참배했다는 것은 '현재적 부정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강화하려는 행위로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성한 토대 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패전 69 주년을 맞은 지난 8 월 15 일, 아베 총리는 주변국을 의식해서 '내각총리대신' 이름이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지만,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전몰자 여러분의 귀한 희생 위에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가해 사실에 대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인식과 아베의 역사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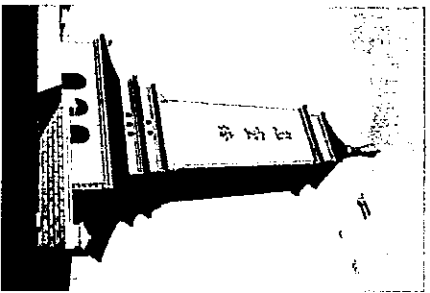
따라서 야스쿠니신사는 물론이고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총리 자격으로 참배한 아베는 역사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도 유죄이자 부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정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영토와 군사적 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야스쿠니신사입니다. 전쟁 전의 이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야스쿠니신사가 있는 한, 그리고 그런 신사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한, 일본사회의 민주주의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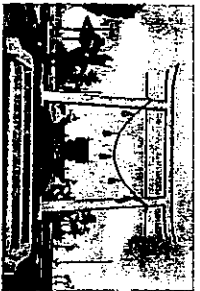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30 여년 전 조선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후쿠자와 유키치는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침략과 정복, 그리고 학살과 광기 끝에 파국적 종말만 맞이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사회는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사회가 야스쿠니신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일본의 민주주의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도 어려울 것입니다. 패전의 폐허 속에서 힘들게 가꾸어 온 이 평화와 연대의 손길을 일본은 뿌리치려 하는 것입니까. 야스쿠니신사와 아베 총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 말을 이제 일본이 되돌려 받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으며, 또한 역사의 공범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9.22 金敏喆



新宮古遺跡 石造り 地蔵塔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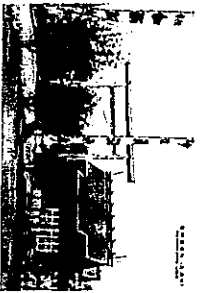
二重鳥居 二重鳥居(複製)



二重鳥居 二重鳥居(複製)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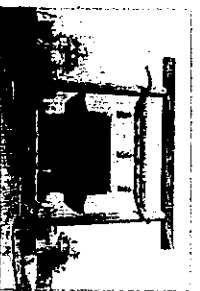
哈爾濱(ソビエト)神社(旧滿洲) (複製)



伊弉諾神社 白玉山物産神社系日鏡海軍神社 (旧滿洲) (複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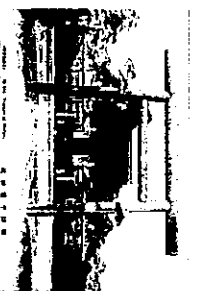
伊弉諾神社(ソビエト)神社(旧滿洲) (複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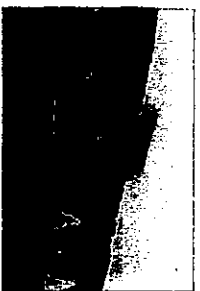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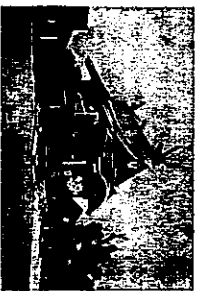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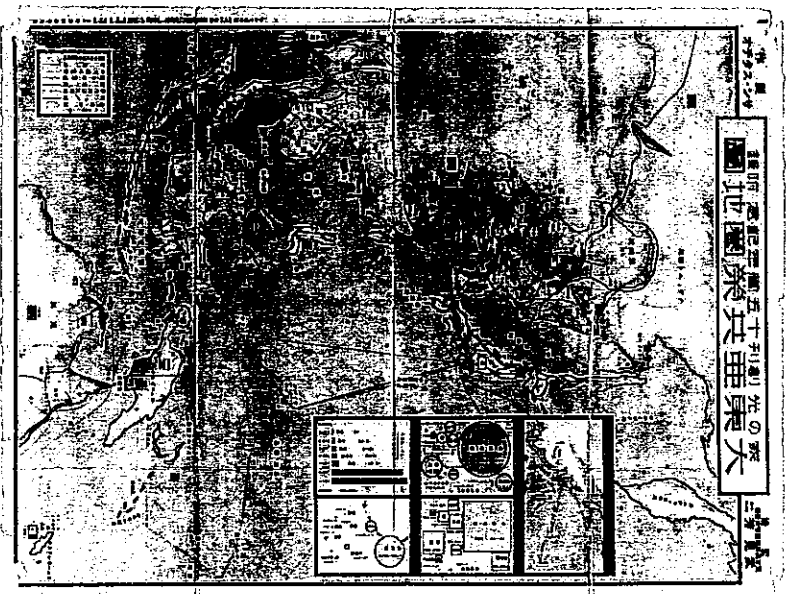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



伊弉諾神社(ソビエト) (複製)



伊弉諾神社(ソビエト) (複製)



大東亜共栄圏(1940年) 日本は侵略戦争を「大東亜共栄」という幻想で重伝した。

#### 4. 侵略の爪牙、侵略神社

日本はアジア各地を侵略しながら、現地に多くの神社を設立した。19世紀末、日本人居留民のために次々に建てられた神社は、日本が植民地支配を始めた後、植民地支配人民に対しても、天皇への忠誠心を育む道具として活用された。海外につくられた侵略神社は、皇民化教育と八紘一宇の思想を宣伝する場として活用された。

日本がアジアを侵略する過程で海外に建てられた侵略神社は、1,000社を超え、といわれているが、日本の敗戦によって、神社そのものが使われたり、資料が焼却されてしまったため、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1940年代、日本敗戦直前の資料によると、侵略神社が朝鮮79社、台湾65社(1942年現在)、その構成は、官幣大社・県社・護国神社・神社(祠)、サハリン(1941年8月現在、官幣社・県社・無格社)、満洲295社(1944年現在の侵略神社があったという。社格の低い神雨まで含めると、朝鮮だけでも1,144社以上を数える。

## なぜ私が原告団に参加したのか？

金敏喆(キム・ミンチョル)

私金敏喆は、韓国の民族問題研究所の責任研究員であり、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執行委員長として、過去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正義を実現し、帝国日本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て被害を被った被害者の、権利回復のため働いている市民活動家です。同時に慶熙(キョンヒ)大学客員教授として勤務しつつ、学生に歴史と教養を教える教員でもあります。そんな私が日本の安倍首相の靖国神社参拝違憲訴訟に参加することに対して、「なぜ他人の仕事に口出しするのか」という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またこの質問は、非常に常識的な質問なのかも知れませんが、しかし私は、靖国神社が私とは何の関係もない、よその国のことではない点を、まず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この説明は、私が靖国神社訴訟に原告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理由の一つに該当することでもあります。

靖国神社が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いことを説明するために、地図を一つ添えました。この地図は日本が近代国民国家の建設以後帝国主義へ成長し、東アジアと太平洋地域を植民地支配したり占領した勢力図です。

帝国日本の勢力膨脹とともに、植民地と占領地に神社が建立されました。したがってこれらの神社は、帝国主義的膨脹をイデオロギ的に裏付ける施設であり、この施設の最高位に靖国神社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アジアの人々にとって靖国神社は、ただ日本の特別な宗教などではなく、2千万人以上の人を死に追い込み、強姦や拷問、殺戮、家族破壊、そして人間の尊厳を抹殺する侵略の象徴でした。

それなのに帝国日本の軍国主義者たちは、こんな侵略戦争を「聖戦」とか「アジアの民族を解放させる戦争」と虚偽の宣伝をし、自国の3,000万人以上の民衆をも犠牲にしました。軍国主義者にとっては「神殿」かも知れませんが、日本の民衆や東アジアの民衆に対しては、死と恐怖を象徴する施設でしかありません。

敗戦で帝国日本の軍国主義体制が否定され解体されたので、この体制を理念的に支えて来た靖国神社は、一つの宗教法人に変身しました。しかしとんでもないことに現在の宗教法人靖国神社は、侵略を聖戦と信じた過去の信念と歴史認識を、そのまま継承しているのです。これは侵略戦争の否定に基づいて作られた日本の平和憲法を真っ向から否定するものであり、帝国日本のために犠牲になった数千万人の被害者と被害に対する明らかな侮辱です。

米国の政治哲学者アイリス・ヤング (Iris M. Young) は、過去の奴隷制について、現在の白人子孫がどのような責任を負うべきかという質問を投げながら、「歴史的不正義 (historical injustices)」という概念を書きました。人権侵害事件が発生した後、複数の世代が過ぎて加害者と被害者両方が死亡した場合、子孫の責任継承問題を提起するために使われたものです。ヤングの概念を借りれば、靖国神社は明らかに「歴史的不正義」の領域で扱われるべき事案でした。しかし、残念ながら靖国神社は「歴史的不正義」ではなく、二つの理由から「現在の不正義 (current injustices)」に該当する事案です。

第一に、今の靖国神社は敗戦前と同様、日本が起こした侵略戦争を日本の独立を守り、アジアを解放するための戦争だったと信じているからです。遊就館の展示室 15 (大東亜戦争) の「第 2 次世界大戦後、各国の独立」説明文がまさにこれを語っています。もしこの論理通りなら、日本の侵略戦争に抵抗した各国の抗日運動は、独立運動を妨害した運動であり、戦争で死んだ東アジアの民衆は、自由を拒否して奴隷的屈従を選択した馬鹿になってしまうでしょう。また、過去の過ちを認めた日本国「平和憲法」の精神を真っ向から否定している論理でもあります。なぜこんな歴史認識が公然と主張できるのか、また許されるのか疑問です。日本人には不快に聞こえるかも知れませんが、このような認識を許している日本社会は、まだ博物館の中でしか探し出せない古い呪術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第二に、靖国神社が周辺国に「第 2 の加害」を犯しているという点から、「現在の不正義」と規定できます。1987 年ドイツのジャーナリスト、ラルフ・ジョルダーノ (Ralph Giordano) は「第二の罪 - ドイツ人であることの重荷」という本を書きました。この本で彼は、ヒトラー時代のドイツ人が犯した罪が「第一の罪」でならば、「第二の罪」は 1945 年以後「第一の罪」を心理的に抑制し、否定したと規定しました。そして彼は圧倒的多数のドイツ人がこの「第二の罪」を犯して来たとしながら、「今日に至るまで、これが西ドイツの政治文化の本質的特徴の一つになって来たが、この負担は今からでも負わなく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ています。この負担とはまさに、ドイツ人が負うべき政治的、道徳的負担のことです。

私はここでジョルダーノの表現を借りて、靖国神社の歴史認識が「現在の不正義」であり、犯罪行為であることを話そうと思います。靖国神社の誤った歴史認識は、「第一の罪」を心理的に抑制し否定することを越え、「第一の罪」をむしろ美化し正当化することで、被害者と被害に二度加害を加えるのと同じ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私は、隣国を侵略して住民に奴隷状態を強要し、さらに植民地と占領地の民衆を戦場に駆り出し、「性奴隷」や強制労働を強要することで人間の尊厳を破壊し、死に追いやった犯罪行為を「第一の加害」だとしたら、過去の過ちを認めず逆に美化し正当化し、被害者と被害を侮辱する行為を「第二の加害」と呼ぼうと思います。「第二の加害」には犯罪事実の隠蔽と否定、侵略戦争の美化と正当化、植民地主義の延長である民族・人種差別政策、被害者の被害救済要求の拒否と人格的冒涇等、色々な形態が含まれます。

靖国神社が犯している「第二の加害」はその歴史認識だけでなく、韓国人、台湾人遺族の合祀撤回要求を拒否することで絶頂に達します。遺族に通知すらせずに、勝手に合祀しただけでも足りずに、名簿から名前を外せという単純な要求すら受け入れません。これは明らかな暴力です。遺族の追悼権を否定するのは靖国神社は、おそらく世界で唯一でしょう。靖国神社は最小限の常識や人類の共通的認識すら許さない、奇形な施設です。一体何の権利があって、遺族が故人を追慕する自由まで奪えるのでしょうか。安倍首相は靖国神社を米国のアーリントン墓地に例えます。無知なのでしょう。でなければ意地を張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アーリントン墓地が遺族の意志に反して、強制的に埋葬しているという話を、私たち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聞いたことがないのは、それが常識に該当する判断だからです。その常識を、日本政府と



靖国神社、そして裁判所が拒否しているのです。

このように靖国神社は「歴史的不正義」でなく、「現代的不正義」として非難されて当然な施設です。そんな靖国神社を安倍首相が公式参拝したことは、「現代的不正義」をなくすのではなく、逆により拡大・強化しようとする行為で、過去の侵略戦争を反省した土台の上に作られた平和憲法の精神を事実上、否定する行為です。敗戦 69 周年を迎えたこの 8 月 15 日、安倍総理は周辺国を意識して「内閣総理大臣」名ではなく、「自民党総裁」の資格で靖国神社へ玉串料を奉納しましたが、武道館で行われた戦没者追悼式では「戦没者の皆様の貴い犠牲の上に、いま、私たちが享受する平和と繁栄がある」とだけ言いました。周辺国に対する加害事実についての反省と不戦の誓いは言及さえしませんでした。靖国神社の歴史認識と安倍の歴史認識が、全く異なっていないことを見せています。

したがって靖国神社は勿論ですが、そんな靖国神社に首相の資格で参拝した安倍は、歴史の法廷だけでなく、現実の法廷においても有罪であり、「不正義」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過去数十年間、韓国と日本、中国は政治、経済、文化等、各方面で活発な交流を拡大して来ましたが、しかし領土と軍事的葛藤、そして過去の歴史をめぐる葛藤は全く弱くならず、むしろ深刻化している実情です。その葛藤の重要な要素が、まさに靖国神社です。戦前の理念から一步も抜け出せない靖国神社がある限り、そしてそんな神社を政策的に支持している限り、日本社会の民主主義は勿論、アジアの平和も空念仏になるでしょう。

今から 130 年余り前、朝鮮の甲申政変が失敗に終わると福沢諭吉は「悪い友を断つ」と宣言した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その結果はどうでしたか。平和と繁栄ではなく、侵略と征服、そして虐殺と狂気の端に破局終末を迎えただけでした。これは否定できない事実です。この事実を、靖国神社は、日本の社会は忘れようとするのでしょうか。日本社会が靖国神社を克服できない限り、日本に民主主義は勿論、東アジアの平和と共存も難しいでしょう。敗戦の廃墟の中からやっと築いて来た、この平和と連帯の道を、日本は根こそぎひっくり返すのでしょうか。靖国神社と安倍首相の愚かさのせいで、福沢諭吉が言った言葉を、いま日本がくり返す過ちを犯さないで下さい。

日本の民主主義のために、そして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裁判所が賢明な判断をしてくれるだろうと信じ、また歴史の共犯者にならないことを懇切に願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4.9.22 金敏喆

上記のとおり翻訳致しました。

李 洋秀